

SEM Sermon

See 2020

2.0/2.0 의 시력으로 보기

Translation by GG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e are now in the year, 2020 -- a start of a new decade.

우리는 새해 2020 년, 새로운 십년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a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중 새해 결심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How many of you have this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중 새해에 이런 결심을 하신 분 있나요?

To read the entire Bible?

성경 전체를 통독하겠다고 결심하셨나요?

If you look at your bulletin, this might come as a shock to you, but we Korean Christians in general know very little of the Bible.

주보를 보고 충격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성경을 잘 모릅니다.

I didn't realize that we Koreans had so little knowledge of the Bible until I went to seminary, when I studied theology.

저는 신학교에 다니기 전엔 한국인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는 걸 몰랐어요.

My seminar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제가 다닌 신학교는 공부하기 힘든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I went to some of the top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world and if I compare the difficulty in my studie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I attend to that of the academic institutions I attend, the seminary that I went to was the toughest -- more intensive, very rigorous.

저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대학 몇 곳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공부도 어려웠지만 신학교 공부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I was in the library all the time.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About 40% of the students were Korean.

그 신학교 학생의 40% 정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I remember our first semester of our freshmen year, we had to take a basic Bible test, to see if the students had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entire Bible.

1 학년 첫 학기에 학생들은 성경 전체의 기본적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기초 성경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You had to attain a certain score to pass.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If you don't pass, you would be forced to take a Bible survey course that goes through the entire Bible.

만일 통과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다루는 성경 개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Among the seminary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 besides Korea -- I would say 50 or 60% of these students passed the test.

한국을 제외한 외국 유학생 중 50 퍼센트 내지 60 퍼센트가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But among the Koreans -- I am ashamed to say this -- only 2 students out of 20 passed the test.

그러나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국 학생들은 20 명 중 2 명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Only 5 to 10% of the Korean students passed the test.

한국 학생들 중 5-10 퍼센트만 통과한 겁니다.

I think it goes to show how we Koreans lack knowledge of the Bible.

이 결과는 한국인의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I went to 2 or 3 seminaries and I saw the same trend in every seminary I went to.

저는 두 세 군데 신학교를 다녔는데 모두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d because our Korean pastors have very little knowledge of the Bible, I believe this is one reason we Koreans produce so many Christian cults and heresies.

제 생각에는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한국에서 기독교 사이비와 이단이 많이 생기는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So many cults start here in Korea.

아주 많은 사이비 종교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If our Korean pastors knew the Bible better and they taught us the Bible better and were faithful to preaching the Gospel to us – every Sunday –

만일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우리에게 성경을 더 잘 가르쳤다면, 그리고 주일마다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힘썼다면,

I believe we Korean Christians would see and understand the Bible and the Gospel more clearly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복음을 좀더 분명히 알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and we would be able to detect false teaching and cult leaders better and we would have fewer cults in Korea and Korean churches would be healthier.

그리고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지도자를 식별할 것이고 한국에 사이비가 감소하고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esus warns us about false teachings/doctrines.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교리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He says,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

...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¹⁸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 Do you still not understand?” Mark 8:15-21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막 8:15-21)

What is this yeast of the Pharisees Jesus is talking about?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Matt. 16:8-12 tells us what it is.

마태복음 16:8-12 절은 누룩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Jesus says of his disciples,

“You of little faith, ...⁹ Do you still not understand? ...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Jesus is warning them against the false teachings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We have a shield, a sword that can protect us from false doctrine.

우리는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와 검을 갖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it is? What is that shield, that sword?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방패, 그 검이 무엇인가요?

It's the Bible and all of us -- we all have access to it.

그것은 성경이며 우리 모두는 그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In Acts 17:11 it says,

사도행전 17 장 11 절입니다.

Now the Berean Jew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 in Thessalonica,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They were able to assess Paul -- the Bereans.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hey were commended by the writer of Acts, they were commended by God because they examined the Scriptures and they were able to test to see if what was preaching was true.

사도행전 기자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듣고 진리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And then they were able to “see” the true teachings of Paul.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year, I want to encourage you to understand the Bible better by reading the Bible in one year. And you can do it!

올해 저는 여러분이 일년간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this you will see the Bible so much more clearly – you will have 20/20 vision. What do I mean by 20/20 vision?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성경을 더 명확히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0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0 시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Let me tell you what “20/20 Vision” means.

“2.0/2.0 시력”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It's the ability to see clearly/perfectly, without needing to wear glasses or contact lenses: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명확히/완전하게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Let me show you how to use this expression in a sentence.

문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g., You are so lucky to have 20/20 vision

예) 당신이 20/20 시력을 가진 것은 행운입니다.

eg., Can you see 20/20 without glasses?

예) 당신의 시력은 안경 안 쓸 때 2.0/2.0 인가요?

How many of you see 20/20?

여러분, 시력이 2.0/2.0 인 분은 얼마나 되나요?

Conversely, how many of you wear glasses or contact lenses or have had eye surgery?

반대로, 안경, 콘택트렌즈를 쓰거나 눈 수술을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I'm sure many of you.

분명히 많은 분이 그럴 겁니다.

I understand that about 80% of Koreans wear glasses.

한국인의 약 80 퍼센트는 안경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In Kenya, where I do my mission work – I worked in a very rural area – nobody wears glasses – I think maybe 5 percent at best wears glasses.

제가 선교활동을 하는 케냐, 그 중 시골 지역에서는 아무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많아야 5 퍼센트 정도 안경을 씁니다.

I envy my wife because she doesn't wear glasses.

저는 안경을 쓰지 않는 제 아내가 부럽습니다.

She actually has 20/20 vision, so I envy her.

부럽게도, 아내의 시력은 20/20 이에요.

The reason as many of you know is that I have very poor vision – extreme myopia.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저는 시력이 아주 나쁘고 근시가 심합니다.

I have blurry vision.

제 시야는 흐릿합니다.

To be honest, I have never met anyone more myopic than I am.

솔직히, 저보다 더 심한 근시를 본 적이 없어요.

My prescription is -22 diopters.

제 안경 도수는 마이너스 22 디옵터입니다.

If you know anyone with worse vision than me, I will take them out for dinner and we will talk about all the hardship we have gone through.

만일 저보다 시력이 더 나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과 저녁 식사를 하며 고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And many of you know I go through difficulties at my workplace because of my vision.

아시다시피 저는 시력이 나빠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Some of my colleagues, especially the senior professors of the college I work at, probably don't like me – because sometimes I don't greet them, especially in the school hallways.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직장 동료, 특히 선배 교수님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때때로 학교 복도에서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d you know here in Korea you are supposed to greet your seniors, you have to bow in respect.

한국에서는 선배, 상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예의입니다.

Because I can't see them – it's not because I don't want to – sometimes I fail to greet them.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인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And sometimes they will think, that Korean-Canadian junior professor has no etiquette, no manners.

때때로 그분들은 캐나다 교포인 젊은 교수가 매너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Sometimes I try really hard to make them out in the hallway. I think that's a professor.

저는 복도에서 교수들이 오는지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 앞에 교수가 오는 것 같아요.

I greet them in advance and then as they get closer, lo and behold, I realize it's a student.

저는 얼른 인사부터 하는데, 가까이 보면, 이럴 수가, 학생인 경우가 있어요.

And that may lead to an embarrassing situation.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지요.

Now physically I have poor vision – I am legally blind – probably times three.

현재 제 시력은 법적으로 따지면 눈이 먼 상태로, 그 기준보다 3 배 더 나쁩니다.

But there is another kind of blindness – spiritual blindness.

하지만 다른 종류의 눈 먼 상태가 있는데, 즉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가 있습니다.

And we are all spiritually blind.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That is to say, before we come to saving faith in Christ, we were all spiritually blind.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모두 영적으로 눈 먼 자들이었습니다.

The Bible talks repeatedly about spiritually blind people.

성경은 영적으로 눈 먼 사람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About those who cannot see and those who can see.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what a person does with Jesus: if you reject the Gospel, you go through life eternity, blind to spiritual realities.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로 나타납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영적인 실재를 못 보는 눈 먼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Just to reinforce the fact that spiritual blindness is a worldwide malady, let me share with you some scriptures:

영적으로 눈 먼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병폐라는 사실을 성경 구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n 1st Corinthians chapter 2, the 14th verse says,
고린도전서 2 장 14 절입니다.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but considers them foolishness, and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discerned only through the Spirit. 1 Corinthians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So the Spirit quickens us and opens our eyes so that we can see.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And in another verse in Jeremiah 5:21-23.

예레미야 5:21-23 절입니다.

Hear this, you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who have eyes but do not see,

... But these people have stubborn and rebellious hearts;
they have turned aside and gone away.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찌어다 ...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 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In Ezekiel 12:1,2 it says,
에스겔 12:1,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on of man, you are living among a rebellious people. They have eyes to see but do not see ..., for they are a rebellious people.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The Bible attributes the totality of this blind darkness to sin.

성경은 이처럼 영적으로 눈 먼 어두움을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We are blind because sin has blinded us. Sin is paralleled in the scripture very often with darkness.

죄가 우리를 미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눈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종종 어두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In the 1st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1:5

요한복음 1 장 5 절입니다.

And the light shines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does not comprehend it.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Romans chapter 1 it says in verse 21,
로마서 1 장 21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The Bible says that we walk in darkness.

성경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So when the Bible says we walk in sin, it means we walk in darkness.

성경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It says in John 3:19 that men love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are evil and so we are trapped in the darkness of sin.

요한복음 3:19 절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죄의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A 2nd contributor to blindness is Satan. In 2nd Corinthians 4 verses 3, 4 and 5 it states,

우리를 눈 멀게 만드는 두번째 주체는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3-5 절입니다.

And even if our gospel is veiled,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⁴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that displays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For what we preach is not ourselves, but Jesus Christ as Lord ... 2 Cor. 4:3-5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 고후 4:3-5

The god of this age is Satan.

이 세상 신은 사단입니다.

So there's the blindness of sin compounded by the blindness of Satan – the god of this age.

따라서 이 세상 신인 사단이 혼미케 함으로써 죄로 인해 눈 먼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God does not want us to be blind -- to not see -- because we will follow Satan, rather than God.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멀어 볼 수 없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 먼 상태에서 하나님인 사단을 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Just to give you an analogy, because I am legally blind and because I cannot see well, I sometimes make mistakes.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시력이 나빠서 간혹 실수를 합니다.

When my wife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at a restaurant with ambience, about 3 years ago, while we were sitting at our table, I went to the restroom.

3년 전, 제 아내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첫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When I came back to sit with my wife, I was looking for the table that my wife was sitting at.

저는 자리로 돌아오려고 아내가 앉은 테이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tables.

테이블이 많이 있었어요.

And I went and I saw a woman -- with my poor vision – that looked like my wife.

한쪽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꼭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And I actually sat at that table and started talking to a stranger.

저는 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사실 낯선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였어요.

And my wife was looking at me from her table and thought, what is he doing?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아내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뭐하는 거야?

And I was very embarrassed when I found that person was not my wife.

저는 그 여성이 아내가 아니란 걸 알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Then I moved to the right table and embarrassingly had to explain myself.

나중에 자리로 와서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All because it was dark and my sight was darkened, so I could not see.

식당 안에 어두워서 시야가 더 흐려졌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던 겁니다.

So in the same way I sat at the table of another person, we too, because we are spiritually blind, have a sinful inclination to sit at the table of the wrong person.

제가 엉뚱한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잘못된 사람의 자리에 앉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And that wrong person is Satan – the god of this age.

그 잘못된 사람은 사단, 즉 이 세상 신입니다.

In our passage for today, God gives us good news in that God gives sight to the blind those who were once blind.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눈이 멀었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Act 28:27-31

사도행전 28:27-31 절입니다.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Therefore, I want you to know that God’s salvation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and they will listen!”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You see what had happened is that Paul was sent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he first wanted the Jews – his fellow brethren to repent and believe, but instead the Jews rejected the Gospel and they even wanted to kill Paul.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 받았을 때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But the Gentiles, they accepted Paul’s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y believed.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Acts 28:30-31

사도행전 28:30-31 절입니다.

For two whole years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He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Acts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행 28:30-31

Why did Paul rent house? I will give you a hint. Remember last week's sermon?

바울은 왜 셋집에서 살았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 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Abraham, Isaac, and Jacob. Did they live in a permanent house?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영구한 집에서 살았습니까?

No, they lived in tents. Why? Because they looked forward in faith, not to this place.

아뇨, 그들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곳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장차 올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No, this world is a temporary rest area for us.

바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임시 휴식처입니다.

They looked forward in faith to the heavenly kingdom, their permanent home: the Kingdom of God.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 곧 그들의 영구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That's why they lived in tents.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Because Paul's rented house was temporary it showed that he was not plann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바울의 셋집은 임시 거처로, 그가 그곳에서 영구히 살려는 계획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He was a missionary – the greatest missionary ever -- because he traveled from city to city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nations.

바울은 각 도시를 다니며 각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Many of the cities he went to, he only stayed for a few days or months to a maximum of a couple of years.

바울은 많은 도시에서 며칠이나 몇 달만 머물렀고 길어야 몇 년간 지냈을 뿐입니다.

In Romans 15:18,19 it says,

로마서 15:18, 19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not venture to speak of anything except what Christ has accomplished through me in leading the Gentiles to obey God by what I have said and done—by the power of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of

God. So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Romans 15:18,19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18,19

Why does Paul say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하고 있나요?

Illyricum is the borderline of the Roman Empire to the Barbarian territories and in Paul's time was most likely divided into 2 territories: one half was called Illyrus Romana, belonging to the Roman Empire; and the other half was Illyrus Barbara, belonging to the Barbarians – not part of the Roman Empire.

일루리곤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은 영역을 나누는 국경지대로 바울 시대에는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일루리스 로마나로 로마 제국이었고, 다른 쪽은 일루리스 바바라로 로마제국 이외의 영역*(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를 사용한 로마제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living in the 1st century in the Roman Empire, the ends of the world would be Illyricum.

1 세기 로마제국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끝이 일루리곤이었습니다.

So Paul had obeyed the great commission. He had preached the Gospel fully/successfully from Jerusalem to Illyricum.

따라서 바울은 지상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히/성공적으로 전파했습니다.

He preached and made disciples and even planted churches in Jerusalem,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nations.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았고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Paul says, “from Jerusalem to Illyricum.” This verse confirms a prophecy made earlier in Acts. Do you remember? Let's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Acts.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앞서 선포된 예언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첫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This is Jesus's prophecy at the beginning of Acts.
이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When will His prophecy be realized?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 이뤄질까요?

When can we say that Jesus's prophecy has been fulfilled?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When it goes to all the nations -- to the ends of the earth.

언제 복음이 만국에, 땅 끝까지 전파될까요?

That is why Paul mentions **Illyricum**.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일루리곤**을 언급한 것입니다.

Thanks to people like Paul and the Apostles and other disciples of Jesus bringing the Gospel from Jerusalem to Judea/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예루살렘과 온 유대/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바울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덕분에

Christianity is now the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with well over 2 billion Christians.

기독교는 현재 20 억 이상의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We went from 120 believers to 2 billion throughout the world who profess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신자는 120 명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20 억으로 늘었습니다.

Now, admittedly not all 2 billion are bona fide believers, but there is a remnant among the world's population in almost every nation.

이제 20 억이 모두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지만, 세계 인구 중 거의 모든 국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oday, we have disciples from Jerusalem, to Judea/Samaria and to almost every nation in the world.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사마리아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제자들을 삼게 되었습니다.

And this was done through the proclaiming of the Gospel in many languages because **the only way the Gospel can go to the nations is if disciples GO and PREACH the GOSPEL to other nations in OTHER tongues – other LANGUAGES.**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많은 언어로 전파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왜냐면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길은 제자들이 가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just a quick review because we are at the last chapter of Acts – Acts 28 -- and we have already had 6 sermons on Acts.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사도행전에 관해 6 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Throughout the book of Acts,
God's Spirit is in mission (working in) the Church:**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며)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 **It starts in Jerusalem (Acts 1–7),**
2. **And then in Judea and Samaria (Acts 8–12),**
3. **And then the ends of the earth (Acts 13–28)**
 1. 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행 1-7)
 2.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행 8-12)
 3. 그리고 땅 끝까지 펼쳐집니다(행 13-28)

So Jerusalem is the first place: God pours His Spirit from Heaven to Jerusalem. Remember, Jerusalem is considered by the Jews to be the centre of the world.

이처럼 예루살렘이 첫번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는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His Spirit is poured onto 120 disciples in Acts 2 and they powerfully declare the glories of God in their languages.

사도행전 2 장에서 120 명의 제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큰 권능으로 선포합니다.

In Acts 2, God pour out His Holy Spirit from Heaven to Jerusalem. The Temple in Jerusalem is the gateway from heaven to Jerusalem.

사도행전 2 장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 **In the Temple in Jerusalem, the 120 disciples declare the glories of God – the Gospel in Gentile tongues rather than in the Holy Tongue – Hebrew (the heavenly language).**
- 예루살렘 성전에서 120 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 거룩한 방언 즉 히브리어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이방인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In Acts 8, Holy Spirit is spread from Jerusalem to Judea/Samaria (the Land of Israel)

사도행전 8 장에서 성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사마리아 (이스라엘 땅)까지 퍼져 나갑니다.

Christ's disciples spread the Gospel in Judea and Samaria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In Acts 8:1 and 4-5, it says,

사도행전 8:1 절과 4-5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Philip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and proclaimed the Messiah there.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1, 4-5)

In Acts 10, the Holy Spirit is spread from Judea/Samaria to Caesarea

사도행전 10 장에서 성령은 온 유대/사마리아로부터 가이사라까지 퍼져 나갑니다.

- **Caesarea is a Hellenized Judean port city.**
- 가이사라는 헬라문화가 강한 유대 지역 항구도시입니다.
- **Caesarea – as a port city – is the gateway from Israel to all the major port cities of the Roman Empire (Gentile cities)**
- 가이사라는 항구도시로 이스라엘로부터 로마 제국의 모든 주요 항구도시 (이방인 도시)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Remember, Cornelius and household are the first Gentiles to speak in tongues.

기억하세요, 고넬료와 그의 집은 방언을 말한 첫번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If you remember, the native language of Cornelius and most of his household is Latin.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고넬료와 그의 집 구성원들의 모국어는 라틴어였습니다.

The Gospel goes out from the port city of Caesarea – the most Gentile-like city of Judea – to major port cities of the Roman Empire.

복음은 유대에서 가장 이방인 도시인 항구도시 가이사랴로부터 로마제국의 주요 항구도시로 퍼져 나갑니다.

And Acts 19 takes place in Ephesus.

그리고 사도행전 19 장은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합니다.

Ephesus was the gateway to many places, especially to the Barbarian nations.

에베소는 많은 장소, 특히 로마제국에 속하지 않은 지역 국가들로 이르는 관문이었습니다.

So it was a strategic place for the Holy Spirit to be poured on to the disciples to speak in tongues – namely, in the Barbarian tongues – and to be sent to the nations.

그러므로 방언, 즉 로마 제국 이외의 지역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만국으로 보낸 것은 전략적인 지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And in Acts 19:1,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사도행전 19:1 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In our passage for today, they talk about seeing: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Acts. 28: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행 28:27)

But the Good News is that Paul preaches the Gospel and the Gentiles see ...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Rather, as it is written: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 기록된 바:

“Those who were not told about him, **will see, ...**” Romans 15:20,21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롬 15:20, 21)

SEM, this 2020, my prayer for you is that you will see clearly the Bible, the Gospel, that you will see 2020 the Bible, the Gospel.

2020 년 SEM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성경, 복음을 명확히 보는 것, 2.0/2.0 의 시력으로 성경,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And how do we that?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If you want to see clearly, if you want to see the Gospel with 2020 vision:

만일 여러분이 명확히 보길 바란다면, 2.0/2.0 시력으로 복음을 보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1) You must, first of all, see your sins. You must see that we fall short of God's glory.

1)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You must see that we have all failed to keep God's commandments.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We have been disobedient. We must see and repent of our sins.

우리는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Not until we see our sins, can we go to number two.

우리의 죄를 보고 난 후에 우리는 다음 2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Seeing the Gospel. When we realize our sinfulness, then we realize how precious the Gospel is to us.

2)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깨달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습니다.

We place our faith in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 what He did on the cros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우리 믿음을 둡니다.

He spilt His blood for our sins and His covering of our sins through His precious, pure blood.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귀하고 깨끗한 그의 피로써 우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If you see your sins and if you see the Gospel and understand and believe in it, then, one day – Good News! -- we will see God:

만일 여러분의 죄를 본다면, 그리고 복음을 보고 깨닫고 믿는다면, 언젠가 –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In 1 Cor. 13:8-12 it says,

고린도전서 13:8-1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they will cease; where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where there is knowledge, it will pass away.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but when completeness comes, what is in part disappears.... For now we see only a reflection; **then we shall see face to face.**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Brothers and Sisters, today we only see a reflection of the Gospel today – we believe in it and hope in it and have faith in it.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면서 복음을 믿고, 소망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But then – when Jesus comes again and raises us up from the dead and gives us new bodies at our glorification – we shall be sinless, we shall be holy – and we will enter His Kingdom – with confidence -- and we shall see God face to face!

하지만 그 때에는 –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된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며 – 우리가 죄 없는 자 되어 거룩하게 되며 –

우리가 그의 나라에 – 담대하게 – 들어가며 – 그리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